

수행과 정진이 삶의 버팀목

체 하지 않았으니 무문관 정진이나 다름없다.
“묵언 정진을 하는 3년 동안은 지금까지 살면서 잠재돼 있던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이 많이 남아 있어 끊임없이 생각이 올라와 괴롭히네요. 3년 정진이 지나니 업력이 사그라지기 시작하네요. 그런데 망념이 줄어들고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면서부터는 그 상태에 머물고 싶은 무기(無記)에 빠져들어 한동안 힘들었지요. 그 후 3년 동안은 안 보고 안 듣고 반연을 쉬면서 정진하다보니 내면의 힘이 길러집니다. 그동안 내가 허상에 이끌려서 참으로 힘들게 살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비교하는 마음이 없어지니 나 자신으로 부터 많이 자유로워진 것이지요.”

기후 스님은 당시의 공부하는 드러낸 것이 없던데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다양한 물질들의 모습이나 학문, 종교사상 등의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그 본질은 하나입니다. 화엄사상에서는 ‘일즉다 다즉일(一即多 多即一)’이라 표현하지요.”

기후 스님은 ‘크거나 작거나 하는 차별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됨의 평등을 보라’고 했다. 그것이 진리적인 삶이고, 불법의 요체란다. 차별을 따르며 거기에 지나친 가치를 부여하고 매달리며 살다보면 항상 시비와 고뇌가 따르지만, 하나됨의 평등성을 보게 되면 언제 어디서나 행복하고 조화를 이룰 수 있음을 강조했다.

“큰 회오리바람이라도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만큼 아무리 완벽하고 오랜 인생 경륜이 있는 사람이라도 때로는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남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찾아내어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부지런히 공부한다면 참 선지식은 처처에 널려 있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보면 선지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마주한 사람이 그대로 선지식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리라. 이때 마루로 날아 들어온 꽃등에 한 마리가 출구를 찾지 못하여 출구도 없는 유리창에 부딪히기를 반복하고 있다. 안타깝게 바라보면 기후 스님은 신찬 대사의 말을 빌려 “세계가 이처럼 넓은데 나가지 못하고 창호만을 두드리는 언제나 나가려나”하고 한마디 했다. 그 한 마디 속에는 ‘열린 마음으로 보면 온 세상이 출구요, 내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다’는 가르침이 담겨 있다.

육년 묵언 정진을 회향하던 날 기림사에 큰 행사가 있어 불국사 조실이신 월산 스님이 오셨다. 일정은 없었는데 월산 스님은 “육년 동안 묵언 정진한 공부를 대중들에게 내보여라”고

했다.
기후 스님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세 번 호곡을 했다. 기후 스님의 호곡에 대해 월산 스님은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중들에게는 공부꺼리를 던져주었을 것 같다. 스님은 선이 가장 강조하는 것이 체험이라면서 선은 해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것이라 했다. 화두 수행하는 데는 대해 스님의 <서장>이 도움이 될 것이라 했다.



살았다는 생각이 들지만 결국은 위압을 얻었으니 마음 경영을 잡못한 거지. 시드니에서 머물 때 나 자신을 또 다시 회광반조하게 되었어요.”

기후 스님은 15년 동안의 호주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위암 3기라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지만, 스님은 수술도 하지 않은 채 지금 육 년째 잘 살아내고 있다. 위중한 병을 특별한 한 치료 없이도 어떻게 버티어내느냐고 했더니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고 자연 속에서 사는 덕분”이라 했다. 아마도 그동안의 수행과 정진의 에너지가 버팀목이 되고 있음에 틀림없다. “시드니에서 찾아 온 불자들은 ‘우리들이 스님을 힘들게 해서 병이 났다면서 죄송하다’는 말을 해요. 설사 신도들이 힘들게 했다 하더라도 수행력으로 받아들이고 잘 풀었어야 하는데 내 근기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지” 라면서 스스로를 견책했다. 스님은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겠기에 이미 시신기증도 해놓았다.

그래도 출가한 자취라도 남기고 싶다는 생각에 얼마 전에 구도소설 <꿈속의 인연들>을 펴냈다. 스님은 “이것도 부질없는 욕심”이라 표현했다. 축서사 홈페이지 ‘별빛방랑과 함께’에 틈틈이 올린 글들을 한 권의 책으로 묶은 것이다. 스님은 “남몰래 낙서하다 들켜 버린 것처럼 부끄럽고 우습다”고 하지만 이 책은 지금 사찰 안팎에서 인기가 높다. “우리의 삶이 묘미가 있는 것은 절망을 다시 희망으로 변모시키려 애쓰며 살아가는데 있습니다.”

다. 이 세상에 자기에게 완벽하게 맞는 조건은 없어요. 만일에 자기 생각에 맞는 조건이 이 세상에 준비하게 대기하고 있다면 아마 열라대왕도 저승의 자리를 박차고 재빨리 이승으로 오고 말 것이라 생각해요. 무작정 자신에게 맞는 여건을 찾을까 아니라 스스로의 무게와 처지를 잘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잘 꾸어어나간다면 희망의 에너지는 결코 우리를 저버리지 않을 겁니다.”

저녁 공양시간이 되어 산길을 되짚어 내려왔다. 기후 스님은 저만치 앞서 걸어가시고, 짙은 그 뒤를 따라 걸었다. 팔이 길어서 그런지 아직도 뒷뚱한 걸음은 분홍빛을 흘리고 있다. 저녁노을 아래 철쭉은 분홍빛으로 오가는 이에게 추파를 보내고, 딱따구리는 다 부질없는 일이라면서 딱딱딱 나무를 쪼으면서 혼자 걷는 노승의 발걸음에 장단 맞추어 준다.

글·사진=문운정(수필가·본지 논설위원)



월산 스님의 내가 만난 선지식 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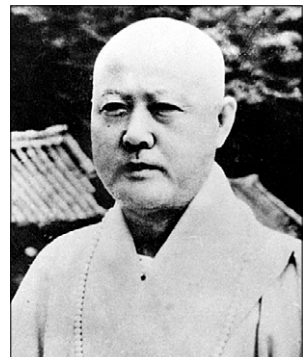
49. 동산 대화상

해일동산(慧日東山, 1890~1965) 스님은 1954년 종단분규 시 비구불교의 햇볕이었다.

1929년 이후 40세가 되면서부터는 범어사·해인사 조실을 지내고 1954년에는 종단분규에 앞장서서 세 번이나 종정을 역임, 수많은 대중들에게 보살계와 구족계를 전수하고 WFB 제5차 대표대회에 다녀와서 전국 사찰을 24개 본사와 말사로 나누어 교구제도를 설립하였다.

화래화거기다년(畫來畫去幾多年)이나/ 필두낙처활묘야(筆頭落處活描兒)로다/ 진일장전만면수(盡日窓前滿面皴)하니/ 아테의구착노서(夜來依舊捉老鼠)로다.
그리고 그린 것이 몇 해던가/ 붓 끝에 닿는 것이 살아 있는 고양이/ 하루 종일 창 앞에 놓여지게 잠자고/ 밤이 되면 예전처럼 늙은 쥐를 잡는다.

처음에는 수행승들이 ‘본사 여섯 개만 주면 싸우지 않고 공부하



노란 잠삼 가사에 법장을 들고 높이 무개차(無蓋車)위에 앉아서 울 안국동 네거리로 순회하던 모습이며, 청담 스님과 함께 조계사를 접수하려 가던 모습이 눈앞에 선다.
스님은 1890년 충북 단양에서

한다고 했으니 말이다. 또 아침에 불이 끝나면 반드시 대중과 함께 마당 청소를 하였다.

조계사에 계실 때는 긴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다가 젊은 스님들이 무엇이라 하면 빗자루를 들고 조계사 마당을 두 바퀴 세 바퀴씩을 돌며 쫓아 다니던 모습이 눈앞에 선다. 악의(惡意)는 없었지만 잘못이 있을 때는 여지없이 쫓아 다니면서 대중 앞에서 참회시켰다.

나는 1962년 불교재건위원회가 구성되고 2월 12일 비구·대처 양측이 8년 만에 회동하여 통합종단을 이루기까지 한 달 반 동안 조계사에 있었는데, 거기서 아침마다 청소를 같이 하였다.

미국에 갔을 때, 카멜에 있는 삼보사에서 이한상 거사님께 들은 이야기다.

“제가 아들이 없어 부인을 하나 얻었는데, 거기서도 아들을 낳지 못했습니다. 부처님께 기도해

종단 화합에 앞장, 종정 세 번 역임... 모든 법당서 아침예불

태어났다. 속명은 동구라 불렀다. 어려서 서당에서 한문을 익히고 1908년 익명보통학교를 졸업한 뒤, 고모부 오세환씨의 도움으로 중등중학교에 입학, 안창호 선생님이 운영하던 흥사단에서 국어를 연구했다. 1912년 의학전문학교를 나온 뒤 1913년 23세에 용성 스님을 은사로 범어사에서 계를 받았다. 이후 백양사 운문선원을 거쳐 평남 맹산군 우두암에서 한암 스님을 만나 <화엄경>을 보고, 다시 범어사 선원에 들러 선을 닦는다.

는데 주력하겠다” 하였는데 대처승들이 이를 반대하자, “대처승들은 씨를 남겨놓아서는 안 된다” 하여 10년 동안 유행사태를 겪었다. 이것이 잘 된 일인지 잘 못된 일인지는 우리로서는 알 수 없다. 어쨌든 이로 인해 한국불교는 18개 종단으로 나뉘게 되었고, 급기야 2000년 이후에는 100여 개 종단이 넘어 오합지졸을 이룸으로써 진가(眞價)를 구분할 수 없는 황당한 처지에 놓여져있다.

1919년 기미 독립선언으로 육에 갇히자 2년 동안 뒷바라지를 하면서 용맹정진했다. 오대산 상원사에서는 장좌불와(長坐不臥)했고 금강산 마하연, 속리산 복천암, 태백산 각화사, 한양 백운암에서 정진하다가 1924년 마지막으로 김천 직지사(寺)에 이르러 한 소식을 얻는다. 이것이 앞에서 소개한 오도송이다.

스님은 정화 후 종정을 사임하고 범어사로 들어가 1965년 3월 평상시와 다름없이 새벽 예불을 드리고, 금어선원에서 정진한 뒤 오공을 마치고 입적하였다. 스님의 일과는 언제나 조양단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조양단, 칠성단, 산신단, 어떠한 법당도 빠지지 않고 예불을 드려, 똑같이 불교정화운동을 하였어도 청담 스님과는 전혀 달랐다. 청담 스님은 산신·칠성·용왕·신장 다 없애버려야

보자라 선학원을 찾아 갔더니 종정스님께서 홀로 계셨습니다. 사정을 이야기하니, ‘부처님께 물어 보시오. 지금 종단이 두 쪽이 나서 재판중인데 제1차는 대처 쪽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돈이 없어 변호사도 선정 못하고 있으니 이것은 부처님께서 알아서 해결해 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해 필요한 기금을 은행에 신탁하겠다고 했더니, 스님께서 마지 한 불기 울리고 축원했습니다. ‘우리 비구들의 상황은 딱산 거사 내외에 달려있습니다. 장차 이 나라 불교가 어떻게 돼야 하겠다는 것을 부처님께서 증명하여 주십시오’ 하고 축원했는데, 그 뒤로 바로 아이가 들어서 종단은 정상화되고 집안일도 풀렸습니다. 그런데, 저희 큰부인도 똑같은 방법에 의해 두 아이를 낳으니, 양쪽이 분리돼 그래서 미국까지 온 것입니다.’ 이것이 스님의 신통력이다.

3천만 불자를 위한 기능성 성불화 아미타

•쿠션작용으로 발바닥압력 분산 및 무릎충격 극소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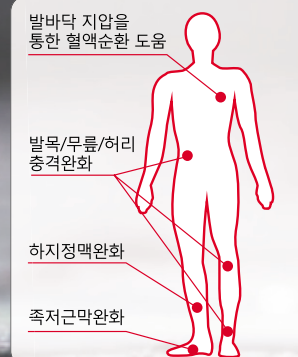
•액션누벅 가죽으로 착용감 극대화 및 방수기능

•인체공학적인 설계로 지면 반발력 극대

◆ 임상테스트 결과



◆ 주요효능



◆ 특수밀창구조도



제품/취급문의
070-8200-5152

마하물(서울시 중로구02-732-1520), 불심원(서울시 중로구02-725-0250), 선재물(경기도 고양시031-968-0975), 용해불교(대전시 동구042-283-3727) 금샘불교(부산시 금정구051-581-1439), 원복사(부산시 동래구051-504-0403), 해원승복(부산시 해운대구), 지장사(부산시 사하구 051-242-1464) 아미타 성불화와 함께하실 불자님을 모십니다. 아미타사업본부 합장

